



경상대병원 김규남

## 녹내장 치료에 프로스타글란딘 제제의 선택 시 고려할 점



녹내장은 진행되는 시신경병증으로 녹내장 치료의 목적은 시기능을 보존함으로써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안압의 상승은 녹내장의 발생과 진행에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며, 현재까지 안압을 낮추는 것이 유일하게 입증된 녹내장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안압하강제를 이용한 녹내장치료의 목적은 시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안압을 하강시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서 위험성이 낮고, 부작용이 적고, 환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능한 적게 주는 제제를 선택해야 한다.

프로스타글란딘 점안제는 강한 안압하강 효과로 녹내장 치료에 있어서 선택 가능한 중요한 치료제다.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는 유럽녹내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 녹내장 치료의 첫 번째 선택 가능한 약물로 인정받았다. 그 이유로는 효과적인 안압하강 효과, 상대적으로 적은 전신 부작용, 하루 1회 점안의 편의성, 내성 측면에서의 이점 등이 있다.

Latanoprost (0.005%) 는 1996년에 처음 녹내장 치료에 사용 가능한 프로스타글란딘 점안제였다. 이후 travoprost (0.004%), bimatoprost (0.03%) 가 출시되었고, 가장 최근에 tafluprost (0.0015%) 가 출시되었다. 그렇지만 latanoprost 는 아직 프로스타글란딘 점

안제 처방 중 65%를 차지하고 있다.

Latanoprost 의 안압하강 효과는 bimatoprost, travoprost, tafluprost 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연구에서 bimatoprost 가 latanoprost 보다 몇몇 지표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으나, 그 수치의 차이가 작고 임상적 관계를 알 수 없었다. 다른 제제들과의 비교에서는 latanoprost 가 timolol, dorzolamide, brimonidine, 그리고 timolol, dorzolamide 복합제보다 안압하강 효과가 유의하게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좋은 안정성과 내성은 녹내장 환자의 장기간 치료에서 매우 중요하다. Latanoprost 는 입증된 전신 부작용은 없지만, 결막충혈, 눈꺼풀 및 홍채의 색소침착, 눈썹의 길어짐 등의 안구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많은 개개의 임상연구들과 메타연구에서 latanoprost 가 bimatoprost 또는 tavoprost 보다 안구의 부작용이 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의 수가 많지 않지만 latanoprost 와 tafluprost 는 안구의 부작용 정도가 비슷하다고 되어 있다. 순응도는 녹내장치료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latanoprost 는 다른 녹내장치료제들과 비교해서 이 부분



그림 1. 라타로 점안액 (Lataro® Eye Drops, Latano-prost 50 ug/mL, 2.5 mL, 한미약품)

에서 이점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의 latanoprost 점안제는 안전성을 위해 냉장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최근 실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들이 등장하였다. 그 중 한미약품의 라타로는 실온 보관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면서도 pH의 변화가 없어서 실온 보관의 편의성과 편안 점안감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라타로는 특허받은 특수노즐이 장착되어 매 점안 때마다 일정한 양이 점안 될 수 있게 해주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점안 시 낭비를 방지해 경제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1)

녹내장 환자의 첫번째 약물치료로 좋은 안압하강 효과가 있으며, 전신부작용이 없고, 다른 프로스타글란딘제제에 비해 적은 국소 부작용을 가진 latanoprost가 좋은 선택일 것으로 생각된다. *eyfit*<sup>®</sup>

## References

1. Alm A. Latanoprost in the treatment of glaucoma. Clin Ophthalmol 2014;8:1967-85.
2. European Glaucoma Society. Terminology and Guidelines for Glaucoma. 3rd ed. Savona: Dogma; 2008.